

부산사람 노무현

김해가 낳은 사람 부산이 키운 사람



노무현 (盧武鉉)

- 1946년 경남 김해 출생
- 1960년 경남 김해 진영 대창초등학교 졸업
- 1963년 경남 김해 진영중학교 졸업
- 1966년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8년 변호사
-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 1993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최연소)
- 1993년 사단법인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 (종로)
- 1999년 동남지역발전특별위원장
-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북구 북구·강서구(을)지구당위원장
- 2000년 새천년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지구당 조직책
- 2000년 새천년민주당 지도위원

연락처

새천년민주당 북구·강서구(을)지구당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77-12
 전화: 051-971-0001 팩스: 051-971-0117
 덕천: 343-2980 금곡·화명: 361-3055
후원회 전화: 02-761-9081
ARS후원금 전화: 02-7000-337 (1통화 1만원)
홈페이지 www.knowhow.or.kr

노무현 - 부산사람, 부산이 키운사람



부산에 행세깨나 하는 국회의원은 많았지만 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도울 전국1위·실업률 전국1위의 부산경제, 수많은 제조업이 부도로 쓰러지고, 종금사가 무더기로 퇴출되고, 삼성차 마저 문을 닫는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 행세깨나 하는 국회의원은 많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무현을 필요로 하는 곳은 종로가 아니라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삼성차 협력업체들이, 부산시 공무원들까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부산의 그 많은 국회의원을 두고 종로 국회의원인 노무현을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노무현을 필요로 하는 곳은 종로가 아니라 바로 여기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치1번지 종로, 299명의 국회의원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
다음 당선이 보장된 자리, 서울시장 0순위의 자리,
노무현은 그런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처음 부산시민들이 노무현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 '95년 부산시장선거 비록 부산에서 두 번이나 낙선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지를 해주신 덕분에 노무현은 아직도 정치인으로 살아있고, 전국적인 인물로 컸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에도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노무현이라도 있어서 부산의 어려운 문제를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을 보고 인물은 좋은데 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부산사람입니다. 종로국회의원시절부터 부산을 위해 일했던 노무현이 당선되면 부산 일 말고 뭘 하겠습니까? 그나마 여당에 노무현이라도 있어서 부산의 어려운 문제를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한나라당의원중에 누가 장관을 만나서 지시하고, 누가 부산문제를 청와대에 건의하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에도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항상 서민을 위해 일 했습니다

노무현을 보고 '서민적' 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노무현은 '서민적' 인 사람이 아니라 '서민'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김해 진영의 작은 시골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는 고등학교밖에 못나왔습니다.
최전방 철책선에서 쫓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말하다가 짓밟힌 노동자들,
군사독재와 맞서다가 박해받는 청년들, 그들과 함께 권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별로 못 벌었지만, '인권변호사, 서민의 대변자' 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서민의 대변자 노무현”

13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2년간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2년간은 농민과 어민들을 위해 농수산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로지 서민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98년 종로에서 당선된지 10일 만에 울산 현대자동차 파업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재벌과 언론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틴 끝에
끝내 노동자들을 지켜냈습니다.

노무현은 다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다 똑같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은 다릅니다.**

'소신있는 정치인'

'88년 5공비리 청문회, 노무현이라고 돈이 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끝내 정주영씨에게 "회장님, 회장님" 하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90년 3당합당, 따라가면 구청장, 경찰서장, 지역유지들이 굽신대는 권세좋은 여당이 되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 쉽게 당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정종식, 야권 통합을 약속하고 당선된 정치인이 유권자들을 배신하고 뺏지에 연연하여 변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95년 8월 김대중총재의 국민회의 분당, 따라가면 금뺏지 달아준다고 했지만 노무현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금뺏지가 아무리 탐이 나도 분열에 동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야할 일은 합니다'

3당합당 이후 14대 총선, 모두들 부산출마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낙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산에서 출마했습니다.

'95년 부산시장 선거 때는 조순씨가 서울 부시장을 제의했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모두들 떨어질거라고 말하는 부산시장에 출마했습니다.

'98년 8월 울산 현대자동차 사건, 나라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에 서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선뜻 나서서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자칫 나섰다가 일이 잘못되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나섰습니다. 한 정치인의 이해득실보다는 나라경제와 노동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의 부산 출마,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안전한 3선, 서울시장의 가능성 모두 포기했습니다.

'능력있는 일꾼'

노무현은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고졸학력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판사를 거쳐 변호사가 되어 꽤 이름을 날렸습니다. 5공시절에는 알아주는 인권변호사였습니다. 초선의원 시절, 노동위 3총사라는 별명이 붙었고 '청문회스타'가 되었습니다. 14대 총선에는 떨어졌지만 7천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당내 경선에서 당당하게 '최연소 부총재'로 당선되었습니다.

"부산에 온지 1년만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한나라당 18명 부산 의원이 4년동안 한 일 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오히려 아쉬움이 많습니다. 초선때는 경험도 모자라고, 힘없는 야당이어서 해야할 일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경험도 쌓이고 힘깨나 쓸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부총재입니다. 이전보다 몇십배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은 다릅니다. 결코 그렇고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떨어지고 뺏지 하나 달겠다고 줄 잘서서
위원장 한자리하고, 이번에는 공천받기 위해서 또 줄을 바꿔서고
지역바람 득 보겠다고 지역구를 뜯어고치는 그런 사람과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한나라당이 부산에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한국정치사를 보면, 당이 인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물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전두환씨는 민정당, 노태우씨는 민자당,
김영삼씨는 신한국당,
이회창씨는 한나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회창씨가 YS를 밀어내고 만든 당,
오로지 이회창 대통령만들기를 위해 존재하는 당,
한나라당이 부산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앞으로는 뭘 해줄 겁니까?

이회창씨의 한나라당은 부산당이 아닙니다.
사사건건 비난만 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은 한나라당을 보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우리 당 우리 당" 한다면 참으로 실속없고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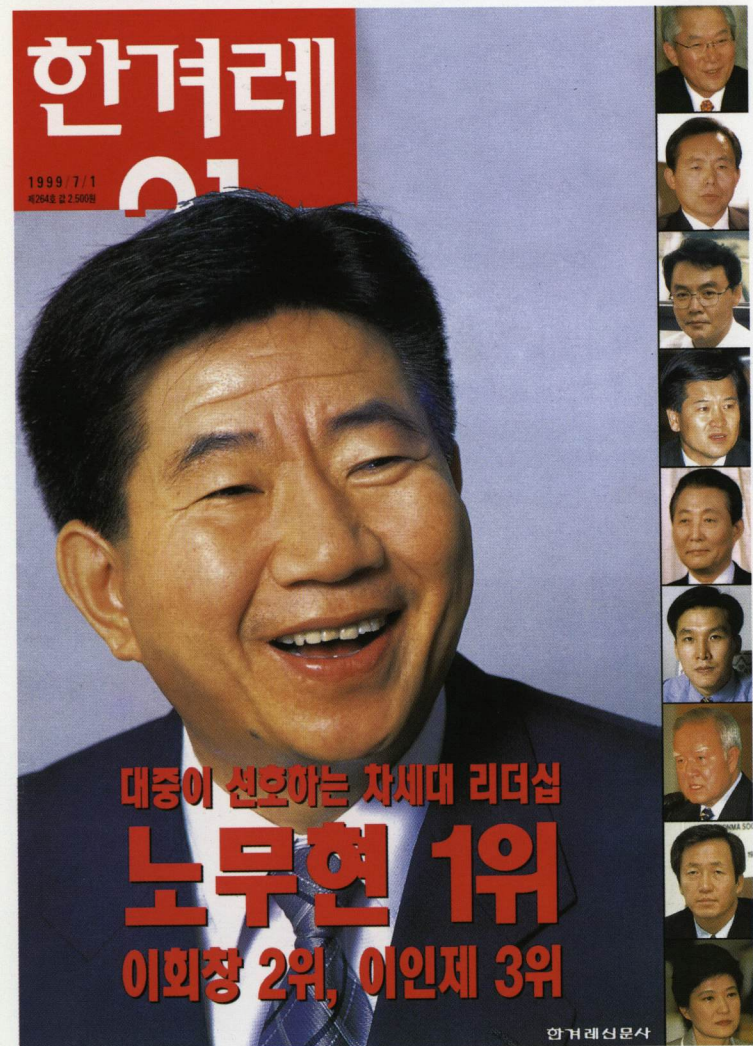
이제 2년만 지나면 다시 대권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너도나도 차세대라고 나설 겁니다.
그때 부산에서는 누가 나설 겁니까?
한나라당 의원중에 나설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은 구경만할 겁니까?

노무현은 미래가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는 노무현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을 이회창씨를 위협하는 인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북·강서을을 지역구로 정하자 한나라당이 최병렬씨를 킬러로 보내려 한다, 박찬중씨를 기용한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정형근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역구까지 뜯어고쳤습니다.

이회창씨보다는 노무현이 낫습니다



날 때부터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자랄 때는 우등생으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20대에 영감님이 된 후 지금까지 대접만 받고 살아 온 사람, 서민들과는 딴 세상에서 살아 온 이회창씨보다는 서민으로 태어나서 서민들과 아픔을 함께 해왔고 선거에도 몇 번 떨어져 본 노무현이 훨씬 낫습니다.

노무현은 아들도 훈련 고되기로 이름난 27사단에서 쫓병으로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아들을 둘씩이나 군대에도 못 보낸 이회창씨보다는 낫습니다.

YS에 반발하여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된 사람이 정권 한번 잡아보겠다고 다시 권력에 줄을 서고, YS가 힘 빠지고 나니까 YS와 등을 돌리고, 입으로는 지역주의청산을 말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부산으로 쫓아와서 지역감정이나 부추기는 일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대중이 선호하는 차세대 리더십
노무현 1위
이회창 2위, 이인제 3위

한겨레신문사



■ 전국적으로 3김씨와 박태준씨를 제외한 정치인 중 선호하는 정치인을 묻는 질의 항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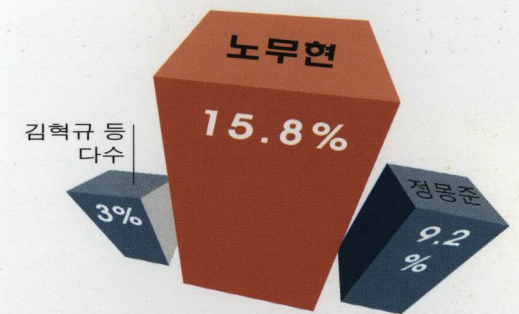
1위	노무현	11.6%
2위	박찬중	8.8%
3위	이회창	7.5%
4위	이인제	7.3%

- 부산일보 '99.9월 조사

■ 부산·경남·울산지역출신의 차세대지도자는?

1위	노무현	15.8%
2위	정몽준	9.2%
3위	김혁규 등 다수	3%

- 인텔리서치 '99.4월 조사



■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노무현	37.3%
박찬중	10.5%
이기택	6.5%
서석재	4.8%

「문화일보」 '99. 3. 25

부산일보의 조사결과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유망한 정치인으로 '노무현 의원' 선정. [98. 9. 10]

매일경제신문의 조사결과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노무현 의원의 부산지역 가능성에 대해 부산 지역민들의 경우는 39.5%의 유권자가 당선을 예상. [99. 2. 18]

중앙일보의 조사결과 PK대표성과 참신성을 갖춘 여권의 차기 지향형 2인자 그룹의 한 축으로 노무현 의원 선정. [99. 2. 22]

■ 21세기를 이끌어 갈 가장 역량있는 정치인

노무현	36.4%
고건	35.1%
이중찬	15.1%
정대철	13.2%
이수성	12.7%

「내일신문」 '98. 7. 27~8. 5 미디어 리서치 국민여론조사

내일신문이 전국 20세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21세기를 이끌어 갈 가장 역량있는 정치인을 조사한 결과 노무현 의원이 36.4%의 높은 지지도로 21세기를 이끌어 갈 가장 적합한 정치인으로 선정.

조선일보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 의원은 가장 촉망받는 정치지도자 중 한명으로 선정. [99. 3. 2]

꿈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부산은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제2의 도시, 동북아의 중심도시에 걸맞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산의 지도를 새로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낙동강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돈없고 힘없어서 큰 소리 한번 못하고 사는 서민들도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썩어빠진 정치판을 새롭게 바꿔 보고 싶습니다.

노무현이 부산에서 당선되고 그리고 부산시민들의 지지를 모아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면 민주당은 전국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망국적 지역구도도 해소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번이 고비라고 합니다.
이번에 당선되기만 하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영남’ 만의 지도자, ‘호남’ 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남북을 하나로 만들기 전에
우선 동서가 하나로 통합된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원들께 드리는 글

돈 안드는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끗한 정치를 위한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김영삼대통령 스스로 선거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대통령도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억+α니 뭐니 하는 사건 때문에 언론과 국민들이 대통령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시대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런 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크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가슴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권자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아서 겪는 여러분의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저 또한 부정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다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희망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